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7년 11월호

통권 제 17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9,10월 교우소식

새 교우

- ❖ 최창학씨(60년생), 종로구 화동 138-6
☎ 736-6922 (정성라 교우 인도, 101구역)



- ❖ 손옥연씨(54년생),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213-2006
☎ 766-6563 (이경복집사 인도, 203구역)



- ❖ 김명임씨(69년생), 종로구 원서동 77-23 202호
☎ 747-6207(김성숙 집사 인도, 107구역)

별 세

- ♡ 고 최귀란씨(백낙환 집사 박숙란 장로 모친, 97세),
9월 6일(목) 별세 8일(토) 장례.
- ♡ 고 이신영 권사(이호창 최소영 집사 모친, 87세),
9월 24일 별세 28일 장례.

결 혼

- ❖ 김기연 양(김희주 강재덕 집사 1녀),
9월 30일(주일) 오후 4시, 양재동 AT센타 5층 크리스탈홀.

환 자

- ❖ 이화자 권사, 너싱홈그린힐(광주시 탄벌동 598-4)
- ❖ 이원호 씨(김정수 권사 부군), 백병원 1205호.
- ❖ 김순초 권사, 백병원 721호.
- ❖ 김창서 집사, (이종애 권사부군),
분당서울대병원 13112호실.
- ❖ 오정순 권사, 상계백병원 1506호.

감 사

- ☞ 객순영 권사, 9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한준기 집사 정정자 권사, 23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윤상구 장로 양은선 집사, 30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이호창 최소영 집사, 14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출 산

- ♣ 김재진 집사, 김윤석 집사, 8월 27일(월) 득남.
- ♣ 박은숙 교우·유성철 집사, 9월 14일(금) 득남.
- ♣ 박수연·홍성창 교우, 10월 14일(주일) 득녀.

입 대

- ♣ 임성빈 군(중고등부 교사), 10월 2일(화) 군 입대

이 사

- ♣ 조복심 교우, 종로구 누상동131번지 드림하이빌 102호 ☎ 737-8527
- ♣ 강희선 집사, 서대문구 연희3동 79-41 ☎ 322-3517
- ♣ 서상옥, 정옥자 교우, 은평구 대조동 79-5 B02 ☎ 389-2347

축 하

- ♣ 윤병대 장로, 대한민국 방송 80주년 기념식에서(3일) 시사 프로그램 제작 공로로 대통령 표창.
- ♣ 방송주 집사,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임용.
- ♣ 이수형 집사, 연세대 언더우드석좌교수(물리학) 임명.
- ♣ 소프라노 김기원 독창회, 10월1일(월)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 한정현 교우, 카페 겸 가구샵 “chairs on the hill” 개업
- ♣ 오기근 교우, 삼성생명 공익재단 제7회 비추미 여성대상 별리상(교육 연구개발 부문) 수상.
- ♣ 김은진(김성렬 집사·지윤혜 권사 1녀), 전국품질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 한지윤선생, 오르간 독주회, 10월 9일(화) 7시 30분 안동교회에서

출 국

- ♣ 광원섭 한행자 집사, 9일(화) 미국 출국.

정책당회

2008년도의 교회정책을 검토 심의하는 정책당회가 2007년 10월 3일(수) 본당 2층 회의실에서 유경재 원로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오전 9시 정각 개회예배를 드리고, 바로 지난해(2006년 10월 3일) 결정사항들의 1년 동안 실행여부를 검토하고 본회의 안건들의 검토 심의에 들어갔다.

당일 2008년 교회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0주년 기념 화보집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2. 100주년 기념 추모의 벽(공간)을 계속 검토 추진하기로 하다.
3. 교육국에서 월 1회 토요일 프로그램(교회학교 문화교실) 운영하기로 하다.
4. 경조국을 신설하기로 하다.
5. 주방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총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기로 하다.
6. 부활절, 창립주일, 추수감사절 등 기념일엔 주방 식사 대신 윤장로님 정원에서 떡, 김밥, 음료 등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7. 늘푸른교실과 노년부를 병합하여 운영하기로 하다.
8. 소허당을 개방하여 복촌 복음화에 활용하도록 문화선교국 내에 ‘소허당 운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9. 100주년 기념 해외선교의 일환으로 미얀마 선교센터를 건립하도록 2008년 중 4천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10. 온라인 헌금을 확대(십일조, 주정, 감사)하기로 하다.
11. 1부예배 전담 찬양대를 신설(완료시까지 기존 방법 지속)하기로 하다.
12. 2008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봄)를 실시하기로 하다.
13. 북한 북고성 농장 견학 및 지원 속개하기로 하다.
14. 해외선교는 격년제로 계속 실시하기로 하다.

추수감사주일

10월 첫째주일인 7일을 우리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유경재목사는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속에서 성경의 전통 가운데 감사절의 특징은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드렸다는데 있다고 했다.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란 그 공동체 전체가 누구나 예외없이 구원을 받았고, 함께 추수를 하였기에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런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순전히 개인의 감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안동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드리는 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유아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에는 식사를 마치고, 운상구장로택 정원에서 문화선교극 주최로 다과를 즐기며 민속놀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놀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성인들은 따뜻한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료를 많이 준비하였는데도 준비한 커피와 녹차가 다 떨어질 정도로 예년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남자 장로들이 솔선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차 봉사를 하여 더욱 즐거운 교제가 되었다고들 한다.



구역연합예배 및 4지회 특강

9월 7일 무더위를 피해 오랜 방학에 들어갔던 구역예배가 다시 시작을 알리며 구역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번 구역연합예배는 4지회 여전도회 연합 특강을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설교자로 초청된 강교자 교수는 에베소서 5:8-21 본문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겸 특강을 하였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점을 맑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달라야 한다. 하늘나라의 원칙은 십자가 원칙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내것을 만들라. 욕의 것을 잡기 위해 영의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습관화하라. 술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총 72명의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특강을 들었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안동 남성합창단 연주회

성경말씀과 찬양으로 이어나가는 형식을 취했다. 유경재목사의 기도로 연주회를 시작하였고, 제일 먼저 시편 23편의 말씀 후 <나는 주의 양>이라는 찬양을 불렀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 후에는 <생명수의 샘물>이라는 찬양을 불렀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라는 말씀 후에는 <어찌 날 위함인지> 찬양을 불렀다.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은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생명수의 강>이라는 찬송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불렀다. 특별 순서로는 청년부 박영원양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다.

남성합창단은 작년에 조직이 되어 월 1회 토요일 1부예배에 찬양을 담당하고 올 한해 동안 꾸준히 연주회를 위한 준비와 연습을 하여 연주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그 은혜를 나누었고, 서로 격려하며 교회

안에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조직은 다음과 같다.

단장 : 이효종장로,

지휘자 : 이봉장로, 부지휘자 : 윤명렬집사,

반주자 : 한지윤선생, 총무 : 강명준 장로,

서 기 : 고문근집사, 회계 : 유왕재집사

제1테너: 강명준 강석인 고현창 김대영 김동형

김운성 박영석 서동진 서우석 신영식

염수정 오도광 유왕재 윤명렬

제2테너: 강석문 고문근 김관수 김성렬 박정음

베이스 : 김용원 배호근 오정섭 유왕재 이중서

이효종 임중대 조기현 정제원 최종원



사랑의 맛 잔치

지난 10월 28일(주일) 2부예배 후에 <사랑의 맛 잔치>가 있었다.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하는 사랑의 맛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나눔의 잔치로 시작하여 여전도회원들의 있는 솜씨, 없는 솜씨로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다.

한빛에서는 명란젓, 찰시루떡, 감자떡, 스파게티, 떡볶이떡을 만들어서 판매하였고, 한샘에서는 수수부꾸미, 녹두전, 호두멸치조림, 오이피클, 야채피클, 북어구이, 마파두부, 잔치국수, 오징어젓, 총각김치, 김튀김, 해물전, 마른새우, 다시마등을 만들어서 판매하였다. 한길에서는 호박죽, 닭꼬치, 떡꼬치, 감자버터구이를 판매하였고, 한사랑에서는 팔죽, 케익, 커피를 만들었고, 여교역자안식관에서 출품한 간장, 된장, 갯잎장아찌를 판매하였다.

사랑의 맛잔치를 통해 많은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엿보였다. 그러나 홍보의 미비점이나 공동협력의 부족, 메뉴 축소 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야하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가도 문제로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의 총 수익금은 1,435,290원이다. 이 수익금은 전액 여전도회 장학기금으로 보태진다. 4지회 여전도회는 각각의 여전도회가 회비에서 장학기금을 매달 따로 모으고 있고, 또 이렇게 행사를 통해 돈을 마련하여 장학기금으로 모으고 있다. 여전도회는 매년 우리 교회 고등학생 중에서 신앙이 좋고, 교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성적이 좋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한누리 가을 나들이

한누리 남선교회원들이 지난 10월 19(금)일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운서원으로 부부동반 한메임원 등 27명이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자운서원은 율곡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되어 자운이라는 사액을 받은 사액서원으로 율곡부부의 묘소와 신사임당의 묘소가 있으며 현대식 건물인 율곡기념관도 있어 이곳을 둘러보면서 회원들간에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아침 일찍 비가 왔지만 날씨가 점차 개어서 깊어가는 가을날에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기에 좋은 시간을 가졌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제92회 총회장

본교단 제92회 총회장에 김영태목사(청북교회 시무)가 선출됐다. 관심을 모은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김삼환목사(명성교회 시무)가 당선됐다.

1천4백79명의 총대가 참석한 본교단 제92회 총회는 9월10일 상당교회에서 개막돼 개회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총회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임원선거에서는 임종우장로 김삼환 김동엽 강병만목사<임직순> 등 네 명의 후보가 차례로 정견을 발표한 뒤 각 후보별로 기호를 추천했다. 기호추천 결과 김동엽목사가 1번, 강병만목사가 2번, 김삼환목사가 3번, 임종우장로가 4번을 각각 받았다.

곧이어 OMR카드 방식으로 진행된 무기명비밀투표에서 김삼환목사는 1차투표에서 1천4백63표 중에서 9백 표를 얻어 당선됐다. 2위 김동엽목사는 3백72표, 3위 강병만목사는 1백48표, 4위 임종우장로는 34표를 각각 얻었으며 무효표가 9표 나왔다. 총회는 임원선거 후 정회했다.

부총회장 선거 직후 총회장 김영태목사가 추천한 임원은 총대들이 박수로 받았다. 다음은 임원명단. ▲서기:장창만 <부>이석형 ▲회록서기:김동운 <부>박희중 ▲회계:오정수 <부>임수근.

재번역 사도신경 확산 시급

제92회 총회에서 공포된 재번역 사도신경을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번역된 사도신경 채택과 관련해 본교단은 지난 3년간 총회에서 폐기와 재상정 등의 과정과 노회 수의과정 등을 거쳐 지난 제92회 총회에서 총회장 김영태목사가 공포하면서 전국교회가 재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본교단과는 달리, 재번역에 참여한 타교단에서는 이번 총회를 통해 재번역된 사도신경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본교단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두 교단만이 재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교단이 주축이 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사도신경 재번역은 본교단이 지난 제90회 총회에서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타교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예장 합동은 지난 제91회 총회에서 주기도와 사도신경 재번역안이 상정됐다가 기각된 후, 이번 제91회 총회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예장 합동과 함께 예장 고신, 기감, 기침 등의 교단들도 재번역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나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한국교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두 가지의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돼 하나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교단간의 협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대광고 판결

대광고 재학 중 학내에서 예배 등 일체의 선교 활동 참여를 거부했던 강의석씨가 모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전체 기독교사학의 종교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부장판사는 강씨가 '학교 측이 종교행사를 강요해 종교·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학교법인은 강씨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광고등학교는 내부회의를 거쳐 항소할 방침을 굳혔다. 대광고 김광조교장은 "이번 판결은 대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사학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고 강의석군을 퇴학조치한 것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행위를 불복했기 때문이었던 만큼 항소를 통해 정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대광고의 항소입장과 함께 총회도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9일 현재)총회는 12일 교육자문부 산하 기독교학교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총회장과 교단 내 유력 목회자, 대광고 측 변호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함께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끝날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변호인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송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교 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신중고 전 교목실장 김종희목사는 "1969년 평준화가 시작된 이래 종단-교육부, 학교-교육부, 교사-학생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왔고 평준화 제도 자체의 모순이 종단학교들에게 큰 불이익을 줬다"면서, "강의석 사태로 대변되는 그간의 갈등이 기독교나 종교사학이 폄하되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목사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평준화를 강행한 교육부가 이번 판건의 원흉이자 원죄임을 이번 재판부가 간과하고 교육부 봐주기의 정치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불공정 오판의 불명예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평준화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광고 김광조교장도 "기독교 사학의 교육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제도(평준화)가 바뀐 뒤부터 교육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종단사학들이 모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오고 있고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번번이 묵살한 것이 최근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목사안수 1백주년

장로교 목사안수 1백주년을 맞아 본교단 목회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기도회를 갖는다. 목사안수 1백주년기념 목회자 참회기도회는 오는 11월 1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본교단 소속 목회자와 올해 봄노회와 가을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열리게 된다.

특히 1907년 7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사역의 첫발을 내디딘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들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를 향해 예언자의 목소리를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제92회 총회시 종교개혁주일에 맞춰 참회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에 따라 열리게될 참회기도회는 본교단 총회가 회개운동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목회자 참회기도회는 목회자들이 교회 밖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하고 목회자의 직업화와 교회의 사유화 및 세속화 등으로 지도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흥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자리로 열리게 된다.

한편 목회자 참회기도회에서는 예배와 강의, 참회기도에 이어 참석자들이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길선주-문익환 목사 "가장 개혁적인 인물"

종교개혁주일에 생각하는, 한국교회 1백20년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은 누구일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 본교단 총회 산하 7개 직영 신학교 교수들은 길선주목사와 문익환목사를 가장 개혁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신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종교개혁 4백90주년을 맞아 1백20년 한국 교회 역사의 개혁과제를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특히 2007년 올해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목사를 배출한지 꼭 1백주년이 되는 해. 장로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개혁하는(Reformed) 교회다. 이 땅의 장로교회가 노회를 설립하고 목사를 안수한지 1백년이 되는 해에 1백20년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개혁적인 인물을 생각하는 것은 어제라는 거울을 들여다 봄으로써 오늘 한국 교회의 개혁과제를 가능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본교단 산하 7개 직영신학교 교수들 중에 본보 설문에 응답한 교수는 모두 32명. 길선주목사와 문익환목사를 꼽은 교수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익목사와 주기철목사 함석헌목사 그리고 옥한흠목사(사랑의교회 원로)를 각각 2명의 교수가 추천했다. 추천된 인물 중 고인이 14명에 생존해 있는 인물도 4명이나 났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개혁적 인물로 추천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교수도 5명이나 됐다. 또한 많은 수의 교수들은 전공분야가 아니라거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음도 밝혀준다.

길선주목사(1869~1935)

길선주목사를 추천한 교수는 모두 3명으로 문익환목사와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인물. 교수들은 길선주목사에 대해 "한국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정초하고 한국 교회의 여성 리더십을 키웠다" "한국 교회에 길이 남을 종말론 연구서 '말세론'을 저술했으며, 유불선을 통괄한 신학적 사유를 10년간의 구도자적 삶과 개종체험으로 나타내며 영성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길 목사를 추천한 교수들은 평양대부흥운동이 개인의 회개운동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부흥과 선교운동으로 이어진 것을 상기시키면서 "참다운 개혁은 개인의 회개에서 출발해 사회를 향해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회개운동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익환목사(1918~1994)

"복음의 정신으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 굴레를 벗어 던진채 몸으로 부딪쳐 용기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줬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레드 콤플렉스'와 민족의 이해, 남북한의 증오문제를 털어내는데 일조했다" "구약학자요 목사로써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던 가시적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를 추천한 세 사람의 교수는 문익환목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 시대에 교회의 자화상이 제 모습을 찾으려면 문익환목사가 헌신했던 영역에서 문 목사처럼 시적인 영감과 피같은 진실로 감당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 내 총회선교사들 '안전'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불교성직자와 시민들의 시위로 미얀마(버마)가 혼란에 휩쓸린 가운데 본교단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최근 미얀마 시위정국과 련

해 "본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 세 가정은 모두 안전하며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본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는 모두 세 가정. 세계선교부에 따르면 이 중 한 가정은 비자만료 문제로 미얀마 국외에서 비자연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가정은 시위가 벌어지는 양곤(랭군)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사역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선교부 총무 신방현목사는 "시위가 격렬한 양곤시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한 가정이며, 이 선교사도 외출을 자제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얀마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교단 선교사들은 이메일 등을 통해 미얀마(버마)를 위한 기도를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자국내 인터넷망을 정지시켰으며 위성을 통한 일부 회선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NGO들 '나눔' 향해 한마음 행진

문득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소외된 이웃이 생각나는 요즘, 기독교 NGO들의 '나눔' 잔치가 풍성히 개최될 예정이다.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한국월드비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통일준비네트워크, 사랑의교회 '정감운동', '사랑의줄이기' 등 총 5개의 기독교 NGO가 주관하는 '기빙 백(Giving back) 2007' 축제가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 백주년을 맞는 올해,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교회 내 공동체, 기독교신우회, 크리스찬 기업, 기독교학교, 선교단체 및 기타 신앙공동체 2천7개가 주최가 된다. 2천7개는 백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년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양한 신앙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갖고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사랑의교회(합동) 담임 오정현목사는 행사에 앞서 지난 17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및 일반 사회 NGO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동체

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오 목사는 "한 사람이 아닌 다같이 잘 살자는 의미의 '공동체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교회 내에서 '정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축제는 신앙공동체들의 연합의 결과가 '공동체 자본주의'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축제"라고 '기빙 백 2007'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제의료 NGO 샘복지재단(총재:박세록)은 오는 30일 서울 구로동 베다니교회에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돕기 콘서트를 개최한다. 찬양 사역자 고희원전도사의 찬양 인도와 샘복지재단 박세록 총재의 간증이 이어질 이번 콘서트는 행사 주최측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수익금 전액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순수 '나눔' 1백%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8일, 샘복지재단 후원으로 건립된 평양제약공장 완공식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박세록 총재는 "임산부의 선천성 기형아, 저체중아, 저능아 등의 출산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신체적 발육을 돕기 위해 북한 주민을 돕는 '사랑의 비타민 111'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을 먼저 살리고 남북이 함께 손잡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샘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비타민 111' 운동은 1만원으로 북한 주민 1명에게 한 달 동안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캠페인이다. 추운날씨와 더불어 소외된 이웃이 생각나는 요즘, 기독교 NGO들의 '나눔' 잔치가 풍성히 개최될 예정이다.

백여년 전통 기독교 개교기념 잇따라

평양 대부흥운동 백주년을 맞는 올해 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본교단 사학들의 개교기념 행사가 풍성하게 거행되고 있다.

지난 1907년 설립돼 올해로 개교 1백주년을 맞는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지난 10일 교정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을 초청해 백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보성여중고 풍물부의 풍물공연, 보성여중 2학년 학생들의 매스게임, 역대교복 입장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철우장로(영락교회)의 기도, 본교단 직전총회장 이광선목사(신일교회 시무)의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 제하의 말씀, 증경총회장 방지일목사와 학교 설립자 노먼 휘트모어 선교사의 손자인 아더 에드몬드 휘트모어 씨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전한 이광선목사는 "평양에서부터 질곡의 세월을 견디며 이어온 보성여중고의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이라며 "성경을 통해 보성여중고 학생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위대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개교 1백10주년을 맞는 송실대학교는 지난 10일 한경직기념관에서 이사장 박종순목사(충신교회), 이효계총장, 서만선 총동문회장 등 내외빈 1천여명을 초청해 기념예배를 갖고 하영조목사(온누리교회),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오도영 캐나다 밴쿠버 한국유학생선교센터 이사장(동일교회 원로장로)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송실대는 이날 기념식에서 제9회 송실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술, 목회, 사회봉사 부문에서 송실대를 빛낸 동문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송실대 동문인 안익태선생 동상 제막식과 더불어 학교 설립자 베어드(W. M. Baird)박사 유품특별전, 교수저작출판기념회 등을 함께 진행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복존우물가

2007년 11월호 · 통권 제175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유 경 재

편집인: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안중혁

발행일: 2007년 11월 4일